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7, 디모데전서 6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목회 서신에 대한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 세션 7, 디모데전서 6장에서 로버트 W. 야브로 박사입니다.

우리는 목회 서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구 제목은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를 위한 사도적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다루고 있으며 디모데전서의 서문과 처음 다섯 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대한 살피보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6장을 보면서 책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생략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얇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이 설교나 강의를 하면서 다 써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6장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시간이 허락한다면 디모데전서를 잠시 되돌아보고 복습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상전들을 온전한 존경으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교훈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의 하위 그룹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든 남성과 나이든 여성,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교회에 있는 다양한 인구통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교훈을 혼합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 천년이 넘도록 성경에 장 구분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장 구분이 담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담화 흐름은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장은 바울이 시작하는 새로운 주제와는 다릅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임의 사회적 관계와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 교회가 회중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책임에 혁명을 일으키는지에 관해 그가 말한 것과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노예의 멍에 아래 있다고 부르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종이 있으면 아마도 교회에서도 주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단지 그들이 동료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인들을 동료 신자들로써 사랑하고 종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르치고 주장해야 할 것들이다. 여기서 노란색 부분은 신성,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명령형, 명령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명령은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디모데와 독자들이 어떻게 상기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명령입니다. 말은 실제 생활을 지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적절하게 적용되고 실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줄은 분리되어 있는데, NIV는 일종의 전환 구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렇게 분리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가 5장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또한 다음 내용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다시 나열할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주요 관찰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방에 있는 명백한 코끼리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노예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처럼 노예 제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간 세상의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양보를 하심으로써 그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해 내가 이런 지시를 내리겠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노예 제도는 고대 세계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현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정복자와 정복자가 있었고 노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예 제도를 만드신 다음, 그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상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수세기 동안 특히 북미에서 노예 제도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것은 비극적이었지만, 교회가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려는 사회적, 정치적 의지를 갖게 된 것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가 점차 종식된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부상이었다는 점에 로마 세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현대 사회에서는, 영국이 바다를 통치하던 시절의 윌리엄 월버포스와 영국 의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주요 식민 세력이었으며, 노예 제도를 해체하기 시작한 것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대규모 기독교인의 존재였습니다. 미국 군대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은 전쟁이었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것이지만 확실히 주요 문제 중 하나이자 주요 영향 중 하나는 노예 제도 폐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에 대한 존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인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식 영어로 그들은 서로의 배짱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국제 여행의 특징일 뿐입니다. 여행을 하고 사람들을 알게 되면 오래된 적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노예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면 노예가 4천만에서 6천만 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그 어느 것도 교회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이며, 노예 제도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소위 서구 기독교 이외의 세계의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GK Beale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주석에 있는 부록의 한 부분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그를 인용하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로마 노예 제도와 미국의 19세기 옛 남부 노예 제도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Anchor Bible Dictionary에서 Scott Barchi의 작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Scott Barchi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 세계의 노예 제도. 그래서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노예 제도는 로마 세계의 광범위한 인구 사이에서 훨씬 더 흔했습니다. 둘째, 문화와 경제가 노예제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면 로마세계에 갑자기 대량 기아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내연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대 세계에서 공급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고대 세계에서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매일의 생계를 위해 의지하고 의지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방법입니다. 셋째, 노예제도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한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범죄로 인해 노예가 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예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 대개 30세 전후에 해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예였다면 해방될 기회가 있었다. 이것이 충실한 노예 노동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동은 결국 해방이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의 상태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노예 생활을 했으며 때로는 빛을 갠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일곱째, 교육이 장려되었고 노예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여덟째,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노예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노예들의 공개 집회는 미국 남부에서처럼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거나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나이 많은 학자인 FF Bruce가 바울에 관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신약의 실천과 가르침이 노예 제도를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출처를 언급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지만 여기서는 일지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직 교수가 쓴 거예요. 우리는 그를 지미 이건(Jimmy Ega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현재 목회자이지만 작년에 출판된 매우 훌륭한 기사인 복음 대 노예 제도, 여섯 가지 신약 논증을 썼습니다.

그는 신약성서 자체에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고 가져야만 했던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존중을 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제도의 사악함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는 암묵적으로 신약성경이 노예제도를 정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노예제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신약성경에 더 많은 공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할 분명한 비전을 충만하게 가지고 성경을 항상 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의 첫 구절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비록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NIV 성경의 거짓 교사와 돈을 사랑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2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르치고 강조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1장의 맨 처음부터

반복되었던 가르침의 문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와 계속해서 견디기 위해 그가 강화해야 하는 도전은 분명히 매우 정교하고 매우 효과적이며 매우 강력한 거짓 선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돌아와서 그들의 MO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강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하고 순수하고 참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모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훈계와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거기서 그치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듯이, 사도라는 말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관할권 아래 있고 당신에게 공개된 것만 그들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전해 주신 감정과 확신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면(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들은 시기와 다툼과 악의와 악한 의심과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과 말다툼에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블로그 사이트에 가는 것과 거기에 있는 것의 단지 어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빼앗기고 경건을 물질적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본 세계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독립된 교회이든, 아니면 식민주의를 통해 그 나라에 존재하는 서구 교파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공회 교회와 아프리카 전역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은 수입과 지위를 얻기 위해 어떤 것이든 믿는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매우 불경스러운 이유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양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소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는 교사로서 신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매우 부도덕한 동기를 가진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원했습니다.

아니면 신학교에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한 청년이 기억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신학교에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아들의 확신은 내가 정말로 성경과 기독교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제안을 하시고 이 방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시아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다녔던 신학교에 가면 이 포트폴리오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나에게 이 대학 근처를 운전해서 돌아다니는데 역시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집들을 보고 이런 차들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나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칭찬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건이 재정적 이익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폴은 여기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추구에 대한 불만, 그것이 런닝머신이다.

그것은 블랙홀입니다. 그것은 경건이 제공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은 큰 이득이 있는 더 나은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을 아는 만족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지시되고 감독되며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선택하신 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아는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노선이 좋은 곳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지하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진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삶을 망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면 너무 파괴적이어서 돈을 벌기 전보다 돈을 다 얻은 후의 삶이 더 나빠집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든 악의 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어쩌면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번역판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과소평가가 아닐 정도로 만연한 악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탐욕, 돈에 대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나는 심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 정도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탐하며,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생각을 생각하면, 돈을 탐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었습니다. 따라서 관찰을 위해 먼저 사도적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주 반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의견 차이가 많지 않고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나 정당이 발생하고, 교회가 클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빼적거리는 바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뭔가에 대해 불평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목사나 교회에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수업을 가르칠 때마다 손을 들고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가 너무 잘 연구되고 쓰여져 출판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설교 후 기독교 대학이 있는 동네에서 설교를 했고, 그래서 그의 설교에 참석하는 교수들이 많았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마다 그는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교수로부터 상세한 비평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독교 출판사가 설교를 출판하고 있지만 회중에는 육체의 가시에 불과하며 항상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역 현장의 한 특징일 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이것이 우리가 디도서에서 보게 될 분열을 야기한다면, 때로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제명되어야 하는 때가 오고 교회마다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의 성찬을

보류하거나 기도를 받은 후에 징계를 받게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야기하고 훈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건의 획득, 경건의 참된 획득, 그리고 만족과 관련하여 바울은 강조할 만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한 7절의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세상에 나왔고, 벌거벗은 채 세상에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출된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용하는 것조차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기 스크린 POD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OD는 사망 시 지급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것의 청지기이며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사랑을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건전한 일입니다. 신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충분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종 당신은 어떻게 생계를 꾸릴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과 살롬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염려할 때에도 밤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만족입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성도들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유혹과 올무와 정욕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으르렁거리며 이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최악의 것을 아시고 명령으로 우리의 손을 치시며 "안돼, 거기 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비롭고, 현명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처럼 에베소에서 영혼을 위협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멸망시킬 뻔한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NIV 성경의 제목은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는데 이는 구약의 표현을 디모데에게 전이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의 첫 번째 명령은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리스어에는 'no'와 'there'가 없습니다. 이것은 Paul이 여러 가지를 버리는 또 다른 예이며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깔끔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어주는 특성들을

간단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성품 특성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붙잡으라 이는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고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의 부르심을 인정받은 어떤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 고백을 할 때에 나타난 바를 붙잡으라.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며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보시기에 매우 엄숙한 말씀이로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그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며, 그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면서 좋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본 단어가 1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6장은 디모데를 이러한 신실함의 명령 아래 두는 것과 관련하여 1장에 설정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에베소에 머물라는 명령과 섬기기에 충성하라는 명령과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보리라 복음을 반대하고 그를 반대하며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켜 성실히 행하라. 곧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니 홀로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사시며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니 그에게 존귀와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다른 송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바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가 디모데를 불러내며 디모데에게 이 같은 비전을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관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는 성경을 인용하고 사도신경을 인용하고, 주기도문을 말하고, 시편 23편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나와 관련이 있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인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이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을 휩쓸며 오늘날 바울이나 디모데 또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오고, 우리 자신을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관찰로 이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매우 직접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의미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도록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완전히 알 수 있고 확실히 관리할 수 없는 비율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는 신이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 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봉사에 충실하도록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부분의 시작 구절인 도망치고 추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디모데가 승리할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신 것을 추구함으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도망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바울의 적극적 윤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디모데후서에 관하여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x, y, z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는 방법,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먹이가 된다고 부르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견고, 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우리는 성경이나 경험을 통해 선하지 않은 일들에 유혹을 받아 시간을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삶을 봉사하고 하나님 추구로 바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 속에서 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은 송영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좋은 신학과 윤리를 완성합니다. 제 생각에는 디모데가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 중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배웠고, 게다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좋은 기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실천적 행동, 윤리적 삶에서 훨씬 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신학과 좋은 실천을 완성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인증하는 것은 15절과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종류의 찬양을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말은, 우리가 보는 것은 찬양의 언어나 송영의 언어이지만, 바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송영은 선한 믿음과 선한 실천을 가지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편지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계속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복해야 하는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잔소리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

그리고 번영하던 도시였던 에베소에는 회중이나 회중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의 일에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기부자들이 아니었다면 미국 신학교 캠퍼스 건물에 제가 서 있는 강의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은 캠퍼스를 사고, 건물을 짓고, 프로젝터와 컴퓨터 등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통해 그분의 일이 세상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통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불경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이면 목사나 교회에 비윤리적인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언급하지 않을 주목할만한 사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그는 대필 작가를 고용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는 실제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대작가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정말 미친 책들이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교회에는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힘을 쏟을 가치가 있고 때로는 생각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때로는 생각만큼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신학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찌니라 부자에게는 힘든 일이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어렵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너그럽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를 쌓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형통케 하실지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것, 예를 들어 과부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견고한 기초로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참된 생명을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삶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좋은 삶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담론에 약간의 휴식이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Paul은 실제로 그의 마지막 말을 시작합니다.

티모시, 내 생각엔 그가 그의 이름을 말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고 로마제국의 큰 도시 중 한 곳에서 복음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경건하지 않은 말과 거짓이라 일컫는 지식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을 버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여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나는 바울이 1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관해 말할 때 처음으로 언급한 주제에 대해 마침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내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지만, 끝내면서 결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쓴 글을 쓰게 된 주요 동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디모데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아이디어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원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즉, 부유한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이 부유한 사람들도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래된 문헌에서 이것이 나중에 쓰여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니고 1세기 말이었고 2세기 초였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많은 평론가들은 영지주의가 대부분의 위경시적인 첫 번째 디모데의 예측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울이 그것을 썼다면(내 가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와 같은 어떤 증거도 이 초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세기. 따라서 이것은 2세기의 수도 Gnosticism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식은 반복음, 적바울, 적그리스도라는 견해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요약 단어인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디모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적으세요.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족보, 우상 추측,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필적하는 이 모든 전략과 신념.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Paul은 그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을 여기에서 반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오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의 Hyman Ames와 Alexander를 기억하십시오.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지키며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복음 사역 대본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역에 들어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들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예의와 호의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의 구원의 진리의 야구장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디모데가 맡은 책임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돌보십니다. 그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 책임의 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충실하게 서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적 과제이다. 둘째, 부유한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목회자로서 우리를 때려눕히기 위해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저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동계급 출신이라면 당신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처럼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보다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사역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신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기부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정한 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장의 일부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롬의 가장 좋은 지점,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글쎄, 그것은 단지 은행 계좌 금액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소중히 여겨야 할 위탁이며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당신은 돈도, 건물도, 기관도, 권력도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귀중한 돌봄, 제자를 삼는 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고 그 수고 속에서 친교의 삶을 누릴 사람들을 아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실천은 구원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이 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함을 느낍니다. 음, 회색 영역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은 전체 장이 개인에게 달려 있는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개인이 특정 사항에 대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중심 복음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많은 관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 앞부분에서 우리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부활, 곧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음, 제가 왜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첫 번째로,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주 전에 사교 행사에 참석하여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처럼 바울이 너희에게 주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모든 것이 디모데의 궁극적인 자원이자 글에 대한 바울의 확신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중보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의 희망 안에서, 이 모든 위협, 이 모든 함정, 올가미,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나는 이 결론을 사랑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그것은 유일한 2인칭 복수형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신 손에 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 곧 당신과 양떼의 모든 양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신뢰, 디모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디모데의 지시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옳은 일을 행하는 회중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디모데전서와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말한 다음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리는 실천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 신학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글에서 우리는 지혜나 지혜 신학에 관해 듣습니다. 내 생각에 지혜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케빈 반후저(Kevin Vanhooser)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조나단 페닝턴(Jonathan Pennington)과 J. 밴더월 드라이든(J. VanderWaal Dryden)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독교 가르침을 이해하여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많은 글을 쓴 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를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가서 그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0장을 꺼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우리의 행동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선행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왔다면 이 중 많은 부분이 매우 반복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찾는 우선순위가 우선 1장과 6장의 건전하고 건전한 가르침이라는 점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목회 리더십의 두 극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 목회적인 감독, 영적인 감독. 가르치는 것이 약하면 양떼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소를 키우는 이웃이 있는데 소는 많고 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들은 대개 요셉이 꿈에 나오는 소들처럼 보입니다. 아주 마른 소들이에요. 그들은 좋은 식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성경의 선한 가르침으로 살찌지 않으면 갈비뼈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자신과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과 듣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디모데전서에는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점은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라는 압력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단지 사람들과 함께 있고 회의를 조직하고 참석하는 데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은 목회자가 가르칠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회중이나 회중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이 가르칠수록 더 많은 열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모임과 좋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목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공중 예배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2장이었죠. 기도. 남성과 여성의 사역에 대한 행동과 접근 방식.

그리고 목회자들은 여성들이 제자도를 받도록 격려합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제자가 되고, 좋은 제자도가 낳는 신실한 삶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신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章)은 단지 남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셋째, 목회자 리더십의 성실성과 역량이다. 3장은 하나님의 높은 기대와 감독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 우리는 사역을 열망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을 수도 있고 그들은 이것저것을 시도했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역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직에 가까운 직업이고 실제로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좀 편한 입장이구나'라고 말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파넬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시간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정관념은 글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주일에 하루 아침에만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정관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직업 윤리에 관한 내 논평에서 나는 목회자들이 때때로 강조하는 이 문제, 즉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도 학생들을 그렇게 잘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을 때 그다지 좋은 학생이 아니었고 사역에서 실제로 학생으로 성장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성취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사도적 교회 비전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3장 끝 부분에 이르면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높은 견해인데, 또 다른 기초에 의해 지탱되는 교회에 대한 높은 견해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스스로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은 교회가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과 가까운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그의 몸과 세상에서의 그의 움직임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4장 전반에 걸쳐 목회자들의 우선순위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것과 참된 가르침을 확증하는 데 열심을 갖는 것 사이의 일종의 진동입니다. 5장의 강의에서 모든 교인의 존엄성, 모든 인구통계의 장단점, 그리고 디모데가 문제, 특히 과부의 도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장뿐만 아니라 책 전체에 걸쳐 송영은 디모데의 문제를 상대화하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그를 새롭게 할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디모데를 불러 모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때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홀로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사시며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니 그에게 존귀와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이것은 목회 서신에 대한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 세션 7, 디모데전서 6장에서 로버트 W. 야브로 박사입니다.